

반다이산의 지형: 생물 다양성을 지닌 풍경

수십 년에 걸친 화산 활동은 반다이아즈마와 이나와시로 지역의 산들, 호수, 습지, 그 외 지형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화산성 토양은 다양한 식생의 성장을 지탱하며 고지에 있는 습지는 고산 식물과 많은 곤충의 서식지가 되고, 더 나아가 이번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른 야생 생물을 끌어들입니다.

오구니누마 늪이나 주변 습지는 약 40 만 년 전의 네코마가다케 대분화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네코마가다케의 마그마 방(상당량의 마그마가 고여 있는 곳)이 부분적으로 붕괴하면서 남겨진 분화구에 물이 고였고, 이윽고 하나의 호수와 늪이 되었습니다. 이 호수와 늪의 남서쪽에는 토양의 배수가 잘되지 않아 습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오구니누마 늪은 43ha(헥타르)의 넓이를 지녔으며, 오구니누마 습원은 약 100ha에 걸쳐 펼쳐집니다. 그 남쪽에 있는 이나와시로 호수는 약 4 만 년 전 반다이산의 분화 이후에 형성되었습니다. 10,330ha의 면적을 지닌 일본에서 4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1888년에 반다이산이 분화하여 화산재와 암설(암석 파편), 이류(진흙의 흐름)로 주변 지역이 파괴되었으나 강을 막으면서 늪과 호수도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역 중에 특히 큰 것이 히바라 호수(1,070ha), 아키모토 호수(360ha), 오노가와 호수(170ha)입니다. 해당 분화로 30곳의 습지와 호수와 늪으로 이루어진 고시키누마 늪과 호수 지대도 형성되었습니다. 이 호수와 늪 지대의 물은 화산성 퇴적물과 규산알루미늄, 철, 구리, 망간과 같은 광물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독특한 색을 띄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분화로 불모지가 된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커뮤니티가 삼림 재조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라반다이 구역은 중요한 들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의 숲, 호수와 늪, 습지대는 동식물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풍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